

장성군, 토종 종자 수집 마무리... 농가 소득화 '시동'

11개읍면 99품종 328점 상당 콩, 팥 등 식량 종자 대다수 토종농산물 재배 활성화 목표 계약재배 생산 판로 확보추진

장성군이 토종 농산물 종자 수집을 마치고 농가 소득화에 본격 시동을 건다. 군은 토종 농산물 재배 농가 조직화와 생산 면적 확대에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24일 장성군에 따르면 11개 읍면 79농가에서 34작물 99품종 328점의 토종 종자를 수집했다.

삼계·복이·복하면에서 가장 많은 종자를 수집했으며 콩이나 팥 같은 식량 종자가 주를 이뤘다.

장성군이 토종 종자 수집에 집중한 이유는 토종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다. 토종 농산물은 전통적인 '한국의 맛'을 구현하는 데 알맞다.

재배 과정에선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을 최소화한 친환경 전통농법을 사용해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합한다.

국내 환경에 잘 적응된 품종이라는 것도 강점이다. 강한 생명력을 지녀 병충해가 발생하더라도 씨앗을 남길 수 있다.

다양한 품종을 적은 양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하나의 작물을 대량 재배하는 '단작화'를 피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단작화 농법을 사용하면 땅의 양분이 한 작물에만 집중돼 다른 농사를 지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

장성군은 수집된 종자 일부는 기초작업을 거쳐 자료와 함께 보존하고 나머지는 토종 농산물 재배 농가 조직화와 생산 면적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다.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토종 농산물 재배농가 간 계약재배를 통해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판로도 확보할 방침이다.

세계적인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정관스님 사찰음식과의 연계를 통한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장성군의 설명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토종 종자 수집을 통해 건강하고 신선한 토종 먹거리를 본격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며 "농가 소득 향상과 미식도시 완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이 최근 토종 농산물 종자 수집을 마쳤다. 장성군 제공

찾아가는 노인 결핵검진 곡성군, 65세 이상 군민 대상

곡성군 보건소의료원은 결핵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기 발견과 전파 차단을 위한 '찾아가는 노인 결핵검진'을 실시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진은 지난 19일부터 8월 중순까지 관내 6개 노인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7월에는 곡성노인복지센터, 학림원 주간보호센터, 곡성행복한노인복지센터에서 검진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이 3개 센터의 검진이 완료됐다.

8월 중에는 옥과노인복지센터, 심정노인복지센터, 조은노인복지센터에서 검진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검진을 통해 총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검진 대상은 65세 이상 의료수급 노인과 재가와상 노인 등이다.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이번 검진은 설문조사, 이동식 흉부 X-선 촬영, 실시간 AI 판독 순으로 이뤄지며 이상 소견 발견 시 추가 객담검사를 실시한다.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 추가로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결핵으로 판정될 경우, 주기적인 진료와 복약관리, 접촉자 검진 등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소의료원 관계자는 "결핵은 대화나 기침을 통해 공기로 감염되는 질환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매년 1회 결핵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화순군, 제14회 복숭아 축제 27일부터 28일까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서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화순복숭아연합회농조합법인(대표 박장영) 주관으로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제14회 화순 명품 복숭아 축제를 개최한다.

24일 화순군에 따르면 명품 복숭아 축제는 지역 여름 농산물인 복숭아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지난해에는 수확기에 계속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행사가 개최되지 못했다.

축제에는 27일 낭만 버스킹을 시작으로 관광객 게임열전, 복숭아 가요제,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개막식에서는 연합회에 속한 13개 작목반에서 출품한 복숭아에 대해 복숭아 당도 및 과실 크기 등을 심사하여 대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13명을 시상할 계획이다.

축제장 한쪽에 마련된 복숭아 품평회장에서는 품평회 출품작 전시 및 복숭아 농가들의 판매가 함께 진행된다.

구현진 농촌활력과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화순의 대표 농산물인 복숭아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농가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군민과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곡성=김대영 기자 화순=김선중 기자

'나주애 줍깅 마실' 나주시, 탄소중립 캠페인 추진

나주시가 최근 빗가람호수공원 일원에서 시민 50여 명과 함께 '나주애 줍깅 마실, 탄소중립 캠페인'을 추진했다.

24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 사업 일환으로도 내 10개 시군에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과 COP33 전남도 유치를 위해 2년째 진행하는 공동 프로그램이다.

나주시는 '자원순환교육지도사' 평생교육과정 수료자 20여 명과 에너지사랑 광주전남지부, ESG환경실천지킴이 등 환경 단체들과 협력하여 탄소중립 실천, 분리배출 장려 등 환경 보호의 중요성 알리기에 앞장섰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백호시회 수강생 모집 나주시, 8월3일까지 30명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백호문화관 '백호시회' (白湖詩會) 참여 수강생 30명을 8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백호시회는 한문으로 써져 어렵게 느껴지는 한시 작품을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춰 재해석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오는 8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백호문화관을 비롯해 나주 관광명소인 목사내아, 나주신정, 영모정 등을 방문해 임제 한시 100여편을 강독, 번역한다.

시회 강독은 전남대학교 김대현 교수가 진행한다. 김 교수는 성균관대 한문학 박사로서 '호남 한시선', '금강산 한시선' 등 다수의 한시선을 출간했으며 특히 '신편 백호전집'으로 백호 문학을 총망라한 임형택 교수 제자이기도 하다.

시회 참가 신청은 8월 3일까지 백호문화관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한시에 관심이 있는 성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강생 신청이 10명 이하일 경우 강좌는 연기된다.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 시민들이 빗가람호수 공원 일원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시민 50여 명과 함께 '나주애 줍깅 마실, 탄소중립 캠페인'을 추진했다. 나주시 제공

영광군, 2025년 경관보전직불제 신청

8월 2일까지 접수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개선하고, 축제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관보전직불제를 오는 8월 2일까지 접수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경관·준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의 경우 50ha다.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단가는 경관효과가 뛰어난 메밀, 유채,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면 ha당 170만원이고 보리, 밀, 이탈리아안라이그라스 등 준경관작물은 ha당 100만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작물의 파종 및 개화 상태, 재배·관리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후 지급되며 동계작물의 경우 사업연도 5월 이행점검 후 7월에, 하계작물은 11월 이행점검 후 12월에 각각 지급된다.

사업 신청은 해당 지구별로 마을경관

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24년 지역축제·도농교류 등 연계 추진 실적과 사업계획서를 8월 2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2023년 전남도 배정 면적의 7.4%인 386.3ha에 대한 직불금 4억여원을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497ha를 지원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지역 축제와 연계하는 등 도농 교류를 위한 사업이다"며 "농촌의 경관 가치를 높이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곡성군, 마음치유 전문 심리 상담 지원

최대 120일간 총 8회·바우처 제공

곡성군은 지난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만성 정신질환으로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

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상담 의뢰서를 받은 자, 정신의료기관에서 상담 소견서를 받은 자,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 검사(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 우울(10점 이상) 증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등이다.

서비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별 의뢰서나 소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최대 120일간 총 8

회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받게 되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는 제공 인력의 전문성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0~30%로 차등 부과된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질 높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문적인 심리 상담으로 군민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